

**<2022년 2월 3일 목요일 새벽, 주 말씀>**

1. 미리부터 해 놓지 않으면 시간도 지키지 못하게 되고, 할 일도 실수하게 된다.
2.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삶은 거의 인간의 책임분담들이다.
3. 자기 할 일을 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존재의 삶을 살 수 없다.
4. 행할 일을 행하지 않는 만큼 자기 소원과 원하는 것이 이뤄지지 않는다.
5. 신앙인들은 자기가 할 일을 하나님께 바라고 미루다가, 오히려 하나님을 안 믿는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무조건 자기 책임을 행하는 만큼도 못하게 된다.
6.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은 자기가 하나님이 해 주시는 것까지 혼자 하려고 하니 힘들다. 하나님을 믿으면, 하나님이 책임을 해주시니 쉽다.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, 그 조건으로 행해 주신다.
7. 사람들끼리도 자기 할 일과 옆 사람이 할 일이 나누어져 있다. 자기가 할 일은 옆 사람이 해 주지 않는다. 자기 물건을 남이 쓸 수 없듯이, 자기 책임과 자기 할 일은 다른 사람이 해 줄 수 없는 것이다. 하나님과 인간 사이도 그러하다.
8. 인간이 할 일은 하나님이 해 주실 수 없다. 하나님이 인간에게

자유의지를 주셨으니, 인간의 몫이다.

9. 자기 할 일을 깨닫고 행하여라.